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타임머신' 특별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체험공간 '다 빈치 창의공방', 손잡이를 돌리면 북을 치는 로봇, 날개를 움직여 새처럼 하늘을 나는 기계, 태블릿PC에 그린 그림을 대형화면으로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갤러리'.

### 소설 '군함도' 작가 한수산 초청 강연

광주 35개 시민사회단체, 내일 전남대에서 사인회도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등 광주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장편소설 '군함도' (1, 2권)의 작가 한수산 소설가를 초청, 강연회와 저자사인회를 갖는다.

오는 12일 오후 7시 전남대 박물관 (4층 용봉문화관)에서 열리는 이번 초청강연회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일제 식민지 역사 청산에 관한 시민의 뜻을 모으고자 기획됐다.

소설은 섬 모양이 군함같이 생겼다 하여 '군함도'로 더 알려진 '하시마'를 배경으로 약령 높았던 조선인 강제징용과 나가사키 피폭 문제 등을 다룬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오지 못한다 해서 '지옥섬', '감옥섬'으로 불리는 군함도는 미쓰비시의 해저탄광이 있던 곳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의 역사는 속편 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에 기여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하시마를 비롯해 조선인 강제징용시설 7곳이 포함된 23곳을 유네스코 산업 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결국 지난해 하시마를 비롯한 징용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한수산 작가는 27년 전 1989년 도쿄의 한 서점에서 '원폭과 조선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하면서 이 문제에 매달렸다. 소설의 무대가 되는 군함도와 나가사키는 물론 원폭 실험장소인 미국 캘리포니아 네바다주까지 다니는 등 치밀한 현장 취재를 거쳐 2009년 일본어판으로 '군함도'를 출간했다. 그리고 전작을 수정하고 새 원고를 추가해 올해 5월 '군함도'를 완성했다.

한편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송중기가 주연을 맡은 영화 '군함도'는 내년 개봉을 목표로 지난 6월부터 촬영에 들어갔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강 '소년이 온다' 독일어 번역 출간

대산문화재단, '계속해보겠습니다' '해질무렵' 등 18편

올해 맨부커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독일어로 번역돼 출간된다.

'소년이 온다'는 광주의 5월을 다룬 소설로, 무자비한 국가 폭력이 어떻게 어린 생명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를 추적한 작품이다. '소년이 온다'가 독일어로 번역돼 출간되면 영어로 번역돼 맨부커상을 안긴 한 작가의 다른 작품 '채식주의자'와 함께,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은 올해 맨부커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제23회 대산문학상 수상작 황정은의 '계속해보겠습니다' 등 18편을 선정하고 총

2억여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강 작가의 '계속해보겠습니다'는 영어와 불어, 중국어, 일어, 이탈리아어, 페르시아어 등 모두 6개 언어로 번역된다. 황석영 작가의 '해질 무렵'은 불어로, 김애란의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영어로 번역된다. 김연수의 소설 '나는 유랑작가입니다'는 중국어로 번역돼 출간된다.

시집도 다른 외국어로 번역된다. 황동규 시집 '우연에 기쁨 때도 있었다'와 '황동규 시선집'이 각각 독일어와 몽골어로, 신달자의 시집 '중이는 영어로 번역된다. 정지용 시집 '향수'는 베트남어로 번역돼 세계 문학 시장에 선을 보인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대산프리모 남가발

## 다 빈치의 예술·과학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는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등을 그린 화가이면서도 악기를 직접 만들어 연주한 음악가인 동시에 건물 설계도를 고안한 건축가였다. 또한 스스로를 '유럽 최고 무기 제작자'로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당시 금기시됐던 인체 해부학을 연구하기도 했으며 비행선, 도르래, 탱크 등 수많은 설계도를 남긴 과학자였다.

현대 과학자들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가리켜 '학문적 기술자'라고 칭한다. 레오나르도는 실제적 기술과 이론적 학문이 접목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날에는 당연시되고 있는 이치지만 레오나르도는 이미 500년 전에 이론을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형을 만들어 실험을 하는 검증 방법을 시도했다.

광주에서 레오나르도의 예술적 재능과 창의적 발상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 10월30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레오나르도 다 빈치: 타임머신'은 레오나르도 예술작품과 발명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흔치 않은 전시다.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창의력

국립광주과학관 특별전 '레오나르도 다 빈치: 타임머신' 10월까지 예술작품·발명품·영상에 체험 프로그램까지 20일 '이탈리아 데이'·강연·르네상스 의상 체험도 열려

도 그려진 코덱스(비밀노트) 약 1만3000장을 남겼다. 코덱스는 좌우를 바꿔 쓰여진 게 특징으로, 겨울에 비춰야만 올바르게 보인다.

전시작들은 코덱스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플로렌스공방이 모형을 제작했다. 레오나르도의 상상력이 오늘날 어떻게 실현됐는지 알 수 있도록 모형과 실제 제품을 나란히 배치했다.

나선형 날개를 지닌 비행체는 드론으로, 체인은 자전거 등 각종 기계장비 부품으로 우리 일상 생활에 녹아든 것을 느낄 수 있다. 원형으로 포탑을 설치한 배는 탱크를 닮았고 세에서 영감을 얻은 대형 날개는 클라이더를 연상시킨다. 잠수부 수중호흡장치는 현대 물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시 하이라이트는 북 치는 로봇이다. 사람 크기 형태로 제작된 이 모형은 옆구리에 달린 손잡이를 돌리면 팔을 움직여

광주일보 지사·지국 안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행구독 220-0550

<p><b>광주시내(062)</b></p> <p><b>북구</b></p> <p>동광 264-2012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우봉 522-7752 우산 512-8116 중남 654-2985 남광 222-9440</p> <p><b>동구</b></p> <p>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부 222-1896 중장 222-8171</p> <p><b>남구</b></p> <p>남부 652-0175 백봉 651-1833 봉선 675-5530 하월 675-6605 진월 671-7276 광천 382-5788</p> <p><b>서구</b></p> <p>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중암 803-0311 화정 369-0583 월곡 941-9174</p> <p><b>광산구</b></p> <p>침단 973-2900 하남 959-1500 광산 944-0444</p>	<p><b>전남(061)·전북(063)</b></p> <p><b>동부권</b></p> <p>고흥군 842-2121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광양시 792-8111 보성군 852-9646 순천시 746-8111 여수시 692-0997</p> <p><b>중부권</b></p> <p>나주시 335-5501 강진군 434-6830 담양군 383-8116 영암군 471-1717 장성군 394-0400 장흥군 863-8822 화순군 374-4423</p> <p><b>서부권</b></p> <p>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신안군 278-8111 영광군 351-1004 완도군 554-6677 진도군 543-0100 함평군 324-8111 해남군 537-6767</p> <p><b>전북권</b></p> <p>군산시 467-2500 정읍시 531-5544 순창군 652-1920 남원시 626-1601 고창군 010-2815-2267 부안군 582-8118</p>
--	--